

광주·전남 코로나4차 유행 기로

9일 사이 100명 육박 ‘급증세’
신규 두 자릿수 행진·n차 속출
의료 공백 우려...‘턱스크’ 여전



14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 설치돼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사들이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의사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 병원과 국가산단, 통근버스, 술집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소위 'n차 감염'도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4차 유행으로 번지거나, 방역울타리 안에서 통제되느냐, 중대 갈림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9면)

◇**나흘 연속 두자릿수 확진...9일만에 100명 턱밀**
15일 오후 2시 현재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3명과 전남 6명 등 모두 9명으로, 모두 지역감염이다. 검체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자정까지 두 자릿수 확진이 유력시된다. 전남 신규 확진자는 광주 9명과 전남 9명 등 18명(해외입국 3명 포함)에 달했다.

지역감염만 놓고 보면 11일 14명, 12일 14명, 13일 20명, 14일 15명, 15일 9명(잠정) 등이다. 50여 일간 잠잠하던 안정세를 깨고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7일 이후 누적확진자는 지역 내 88명, 해외유입 10명을 합쳐 98명에 이른다. 7일 이후 지역 내 감염자는 광주가 36명, 전남은 52명으로, 하루 평균 광주는 4.0명, 전남은 5.8명이다.

◇**의료진→환자, 친구→어머니 등 'n차 감염' 속출**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A씨와 보호자 B씨는 회식자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해당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레지던트, 광주546번)와 접촉한 뒤 n차 감염(추정)돼 각각 광주 555번, 556번으로 분류됐다.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는 의사 3명, 간호사 2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8명이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 사는 552번은 아들인 554번과 접촉한 뒤 감염됐고, 554번은 대학생 친구인 539번과 만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539번은 지난 2일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확인된 동선

으로만 따지면 친구로부터 감염된 뒤 어머니에게 까지 번진 셈이다.
비슷한 시간대 같은 호프집에서, 상무 유흥주점발 첫 확진자인 528번과 술을 마신 536번 역시 528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틀 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고, 유치원생 자녀도 뒤이어 n차 감염되면서 확진자(광주 540번) 리스트에 올랐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직장 동료와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내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232번은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통근버스에서 촉발된 n차 감염자(전남 220번)의 접촉자고, 236번, 247번도 광양제철 협력업체 관련 확진자(전남 211번)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5번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229번의 배우자다.

◇**거점병원 연쇄 감염, 의료 공백 우려**

광주·전남권 거점병원이자 코로나19 핵심 의료시설인 전남대병원에서 의사, 간호사에 이어 입원환자와 보호자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쇄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시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확진의사와 접촉한 중형 민간병원 의료진까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의료진과 종사자, 입원·외래환자 등 5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2, 3차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실과 외래 진료시설은 16일까지 일시 폐쇄됐다. 외래진료와 입·퇴원 수술 등의 업무는 잠정 중단됐고, 입원환자에 대한 원내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 병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의 진료실·구내 식당 등이 폐쇄됐다.

두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잇단 전원 조치로 일선 의료 현장에선 업무 가중과 혼란, 의료서비스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마스크 의무화에도 '턱스크·코스크' 여전**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지만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 코 부위를 노출하는 '코스크' 등은 여전하다. 단속 첫날, 이른바 '불곰'을 맞은 술집 앞에는 1~2m의 줄이 늘어섰고, 테이블 간격도 1m가 채 되지 않은 50cm에 그쳤다.

술집 앞에서 흡연한 뒤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가는 일행이 많았다. 취기가 오른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국제공항 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연내 착공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 43.9km 구간
공사기간 단축 7개 공구로 나눠 추진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 목표

전남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연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호남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고,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체 구간 중 미연결로 남아있던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3.9km 구간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7개 공구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총 7개 공구 중 터키방식으로 추진한 3개 공구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난 13일 선정됐다.

각 공구별 적격자는 ▲2공구(함평 학교읍~무안읍) 동부건설 ▲4공구(무안 현경~망운면) 대립산업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태영건설 등으로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김정환기자

다. 업체들은 입찰시 제출한 우선 시공분(베스트트랙)에 대해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일반 공사로 발주된 1·3·6·7공구 등 나머지 4개 공구도 오는 24일 개찰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이뤄진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무안공항 주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역의 동선을 공항과 일체화시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1단계 중부 옥송부터 광주 송정까지 182.3km 구간은 지난 2015년 4월 신설 철도로, 2단계인 광주 송정부터 고막원까지 26.4km는 기존선을 개량해 지난해 6월 개통됐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2단계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민 56%,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찬성'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반대(13%)하는 광주시민보다 찬성(56%)하는 시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월 20~27일 8일간 광주시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여론조사결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 설문자의 46.3%(여성 51.4%)가 '개발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1.2%, 30대의 48.8%, 남구 지역의 61.6%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편차가 심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찬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4%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광주시의 관광, 레저, 휴식공간 확보차원'이라는 응답비율이 64.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등산 개발로 지

역경제 살리기'가 33.8%, 기타 1.5% 순이었다.

개발에 반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였으며 반대 이유는 '개발효과가 없음' 54.8%, '지역상권이 걱정된다' 15.4%, '개발이 어렵기 때문' 11.2%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30.6%가 '찬반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에 따라 어등산 개발사업에 대해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했다.

개발사업의 지체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광주시의 개발의지 부족'이 25.9%, '중구난방식 의견 때문'이 24.9%, '사업수익의 사회환원 프로그램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부족'이 22.7%, '개발사업자의 수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 18.8%로 도출됐다.

사업추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민간의 공동개발'이 43.9%,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38.2%,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이 8.6%로 조사됨으로써 시민들은 민간공동개발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